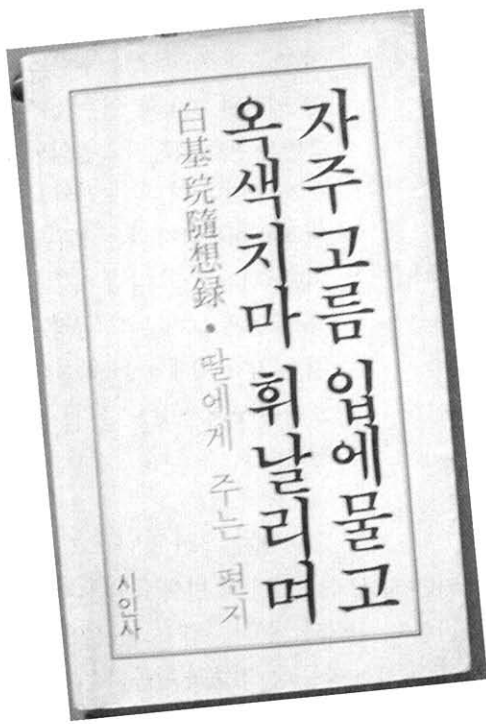


## 백기완 표 민족주의, 민중주의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199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나는 종묘공원 옆 어느 교회를 빌어 시작된, 공해문제연구소 주최의 제1회 강습회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환경운동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터였지만, 나로서는 용케 호기심을 챙기고 있었다. 꽤 많은 수강생이 신청을 해서 열기가 제법 뜨

거웠다. 첫 번째 수업 시간, 한쪽 귀가 좋지 않으면서도 나는 일부러 뒤쪽 자리를 차지하고 없는 듯 앉아 있었다. 연사 때문이었다. 그는 검은 두루마리 한복 차림의 백발 청년 백기완 선생이었다.

나는 그분의 강연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른바 댕거리 화법. 일방적으로 당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식의, 그러니까 강연 도중 수시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하는 식의 화법이었다. 그게 민주적이지만, 때로 곤란한 점도 있었다. 질문을 해서 답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그 중 만만한 이를 '찍어' 재차 질문을 던지곤 했기 때문이다. 연사를 아는 이상, 나는 창피한 일은 당하지 말자, 미리 몸단속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백기완 선생이 누구신까! 아, 눈도 좋으셔라!  
“어, 거기, 김 작가도 있구먼. 잘됐네. 김 작가, 주체 주체하지들 않소? 그 주체라는 게 우리말이 아니거든. 우리말로는 주체를 뭐라고 하지요?”

정답은 '알기'다. 그러나 그날 나는 당연히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 했는데, 다행히 우리의 백 선생은 입속으로 꿀얼거리기만 하는 내 말을 “그렇지요? 알기! 바로 알겁니다.”하고 참으로 천재적으로 번역해내시며 수업을 이어갔다.

그날 이후, 백 선생만 떠올리면 우리나라 사전에는 어디에도 없는 그 '알기'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한뉘

(평생) 오로지 민족과 민중만 생각하며 살아오신 지독한 민족주의자이며 민중주의자 백 선생. 당신네 동네(황해도 은율)에서는 그렇게 썼다는데 그리고 그게 순우리말이라는데, 대체 누가 그걸 감당해 낼 것인가. 만일 거기에 대고 “저, 선생님, 그거 공인된 우리말인가요?” 하고 되묻기라도 한다면, 아마 거친 야전에서 평생을 보내오신 선생과 맞장이라도 뜰 각오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 기나긴 시간 교육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뎛거리 화법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시인사, 1979, 이하 『자주고름』)는 내가 제일 먼저 접한 그분의 책이다. 과연 그 책은 ‘백기완 표’였다.

표지 날개에 그의 사진이 있다. 부리부리한 눈, 짙은 눈썹, 뭉툭한 코, 굳게 다문 입. 다부진 조선 청년 백기완인데, 그는 흰 수건을 턱하니 목에 걸치고 사진을 찍었다. 방금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온 듯한(물론 땀을 닦은 뒤의) 모습으로. 그것이 말하자면 백기완 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계속해서 약력이 당당하다. 출생 뒤에는 곧바로 ‘독학’이다. 그 뒤 ‘농민운동, 빈민운동,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저서 『항일민족론』을 펴낸다. 구질구질한 게 없다. 그리고는 마침내 ‘현재 백범사상연구소 소장’으로 마침표.

그 책을 읽노라면 “사내라면 모름지기 앉은 자리에서 개 한 마리는 너끈히 해치워야 한다.”는 그의 말이 떠오른다. 언제였을까. 선생을 처음 뵈었을 때였을까. 당신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렇게 말했다. 그때만 해도 육고기 자체를 싫어하고, 특히나 개하고는 인연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던 나로서는 초장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책은 그런 투의 이야기를 ‘담’에게 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답아, 너는 춘향전을 읽어 본 적이 있느냐?”

“답아! 우리의 전통문학의 알맹이는 무엇무엇 있는지 아느냐?”

“답아! 아버지는 어째서 오늘 갑자기 어린 너희들에게 변증법이니 또는 세계관이니, 하고 자못 알다가도 모를 커다란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담은 백 선생의 큰딸 백원담이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녀 역시 아버지의 호쾌무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말하자면 앉은 자리에서 개 ‘반 마리’ 쬐은 너끈히 해치울 여결쫘미겠거니 연상했다. 내 추론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마약 출판사(일도서출판 화다)을 시작한 백원담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 바, 과연 그녀는 한눈에도 ‘그 아버지에 그 딸’이었다. 마포 경찰서 건너편 허름한 건물 이층에 자리잡은 출판사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녀에 대한 내 인상은 마치 중국혁명기의 홍군 여전사 같았다는 것으로 남아 있다.

#### 자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체

『자주고름』은 여러 면에서 충격이었다. 무엇보다도 한 권의 책을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점이 놀라웠다. 책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체 그대로 되어 있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날것 그대로의 생생함이라니! 게다가 내용은 철저히 민족적, 민중적이었다.

흰 수건을 목에 두른 백 선생은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지식인 까뮈를 단방에 날려 보냈다. 즉 『이방인』은 “까뮈의 실존주의 사상의 한계가 1940년대라는 자본주의 문명이 고도화된 유럽 사회에 던져져, 거기서 처참하게 확인된 작품”이며, 주인공 뫼르소는 “허깨비 같

은 자의식”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백 선생은 피르소가 하필이면 아랍인을 싸 죽이는 데 분노한다. 그것은 당시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럴진대 백 선생이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춘향전 속의) 춘향을 이를 봉건체제에 저항하는 민중의 전형으로 해석한다든지, 심청이를 “지난날의 왕조사회에서 민중의 심미주의와 가치관을 결정해 주던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해석한다든지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백 선생의 ‘사내론’ 또한 나와 같은 책상물림 서생이 좇기에는 참으로 과격했다. 그가 아는 사내 중의 사내는 주먹깨나 쓰는 친구였는데, 집안일은 거의 돌보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어 병원에라도 가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한다. 사내는 아내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다짜고짜 의사의 멱살을 붙잡고 “네 놈이 아내를 우선 입원시켜 살려 놓든지 이 주먹에 맞아 죽든지, 선택을 하라”고 협박, 3개월 만에 아내를 완치시켜 놓았다는 것.

### 제제한 세상에 읽어볼 만한 책

『자주고름』은 요즘처럼 제제한 세상에 한번쯤 되찾아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는 백범사상연구소를 세우기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한다. 그 과정을 그는 이렇게 ‘변명’



한다.

“애들아, 문 좀 열어라. 벌써 이를 췌구나. 갑작스러운 기습에 숨죽이는 전선의 밤처럼 이거 어디 답답해 살겠느냐? 내가 네 피아노를 팔아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방탕한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차리는 데 보태 쓴 것뿐이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우리들과 미리 의논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일단 값이나 알아보려고 장사꾼을 불렀는데 마침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질구레하게 값을 흥정할 수도 없

었다. 나도 너희들이 학교엘 가고 없는 사이 텅 빈 집구석에서 시키면 곰 같은 것이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을 연상하였다. 입이 뒷산만해질 네 어머니, 칭얼거릴 현담이 얼굴, 무능한 애비를 마구 강타하는 너희들의 항의, 몸부림,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도 모순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강변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는 둘로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바쳐 싸우는 싸움터다. 여기에 피아노 하나쯤 바쳤기로서니 도대체 무엇이 어쨌단 말인가?”(『딸들아 문 좀 열어라』 중에서)

아, 멋있다. 이런 ‘민족적 민중적 우격다짐’의 사내야말로 백기완 표라고 아니할 텐가. 그래도 궁금해진다. 결말이 어쨌지? 딸들은 언제 문을 열었을까? 피아노를 다시 사 주시긴 했을까?

### 김남일 (소설가)

- 1957년 경기 수원 출생 ·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단편 『베리』로 등단
- 장편소설 『청년일기』 『국경』(전 7권), 작품집 『일과 밥과 자유』 『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장편동화 『떠돌이 꽃의 여행』과 평전 『김상진』을 집필
- 민족문화작가회의 사무국장, 계간 『실천문학』, 주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회장 역임

# 함께 만드는 희망세상

## - 구독료 납부 안내 -

『희망세상』은 민주화운동 정신에 참여한다는 뜻을 살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무료로 보급하던 것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발적 유료화로 전환하려 합니다.

〈구독료는 연간 1만 원이며 그 이상의 정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5601-04-019001

농 협 013-01-298022

(예금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자발적 유료화에 참여하시는 분은 저희 사업회에서 마련하는 행사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